



정상화를 따라가는 펀드투자(요약)

1.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 국내ETF 중심으로 투자 재개

- 주식직접투자로 투자 경험을 쌓은 투자자들은 투자했던 종목과 유사한 범주로 간접 투자를 조금씩 확대
- 상반기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변동성과 관련된 ETF로 자금 유입이 집중되었음. 2분기에는 주식투자로 할 수 없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과 관련된 ETF로 집중적으로 자금이 모였음
-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대어급 IPO에 대한 관심은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펀드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졌음
- 4분기 이후에는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 관련 ETF, 정상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의 ETF로 자금 유입이 재개되고 있음

2. 글로벌 투자자, 정상화와 신흥국에 투자

- 11월 초부터 신흥국주식 ETF와 아시아(일본제외)주식 ETF의 순유입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이어짐.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잘 통제되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신흥국 주식펀드 플로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선진국주식펀드는 이익실현이 이어지면서 자금 유출이 이어짐 '08년 금융위기
- 10월 이후로 미국시장에 상장된 ETF투자자들은 해외주식, 신흥국주식, 가치주, 회사채 관련 ETF에 투자를 늘리고 있음
- 미국주식에 상장된 ETF의 자금유입 순위를 보면, 코로나로 인한 비정상적 상황에서 수혜를 받았던 분야에서 정상화의 수혜를 받는 분야로 투자자들의 관심 이동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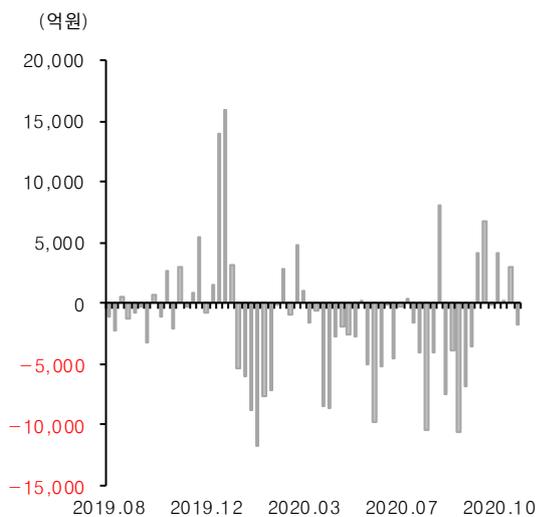
1.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 ETF 중심으로 투자 재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국내외 주식 직접투자를 크게 늘렸다. 국내주식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0조원을 넘겼고, 3분기 외화증권 결제 금액은 911억 달러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외 주식 시장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 선택이 좀 더 어려워졌다. 주식직접투자로 투자 경험을 쌓은 투자자들은 투자했던 종목과 유사한 범주로 간접 투자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해외주식펀드는 9월부터 자금 유입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국내주식펀드도 10월부터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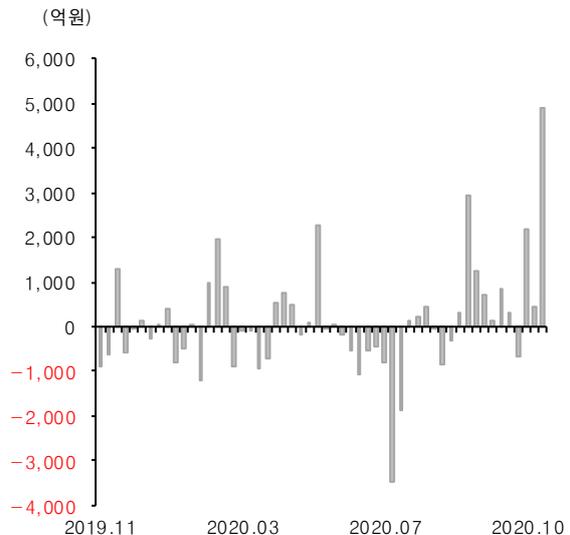
2분기에는 주식투자로 할 수 없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과 관련된 ETF로 집중적으로 자금이 모였다. 인버스2X 상품으로는 7월까지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2차전지,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 벤처 펀드 등으로 자금이 모였다. 4분기에는 시장 전체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KOSPI 200 관련 ETF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상반기 자금 유입 펀드를 보면, 국내주식과 관련된 ETF가 상위 펀드에 많이 들어가있다.

[차트1] 국내주식펀드, 자금 유입 소폭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해외주식펀드, 자금 유입 규모 크게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2. 글로벌 투자자, 정상화와 신흥국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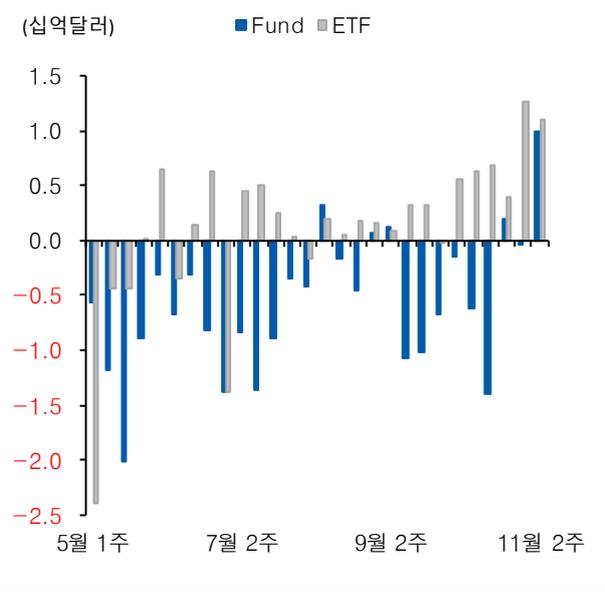
11월초부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주식시장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글로벌펀드 시장을 살펴보면, 신흥국주식 ETF와 아시아(일본제외)주식 ETF의 순유입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미국에 상장된 ETF는 전세계 ETF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활발하게 거래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미국에 상장된 ETF 시장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

10월 이후로 필수소비재주식ETF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반면 민감소비재주식ETF는 3분기 이후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미국대형성장주ETF도 3분기 이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나, 미국대형가치주ETF로는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IT섹터주식ETF는 언택트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헬스케어섹터주식ETF는 하반기 이후 신규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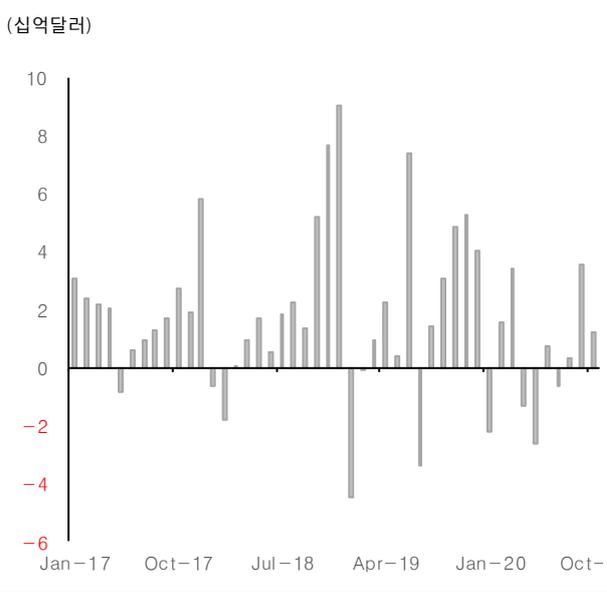
글로벌투자자들은 변동성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투자상품보다는 비정상 구간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투자상품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차트3] 신흥국 주식펀드, 자금 유입 규모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미국대형가치주 ETF 자금 흐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